

원예산업 종합평가 '전국 1위'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실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78억원(무이자) 자금 확보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 실적 연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원예산업종합계획은 18~22년 동안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종합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계획으로 매년 이행실적과 정부 정책의 연계성 및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관리 사항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14개 광역·지자체와 11개 품목 광역조직을 대상으로 원예산업종합계획의 이행 노력(이행점진, 거버넌스, 생산 분야(조직화·출하), 유통 분야(통합마케팅 확대, 참여조직 참여도) 3개 항목 5개 지표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도 등을 평가했다.

시는 3개 분야에서 모두 만점을 받

고, GAP인증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과 통합마케팅 조력제정 등 제도화 부분에서 가점을 받으며 전국 1위 최우수 조직에 선정돼 농산물 통합마케팅 선도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특히 시는 탐마루 딸기 공동출하회 확대 등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 공동출하·선별 확대를 통한 조직화 출하, 원예농산물 취급 대비 통합마케팅 출하액 79%의 참여도, 통합마케팅 확대 등 3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예농산물 판매실적은 20년 380억 원 대비 21년 470억 원으로 20% 이상 성장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며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또한 21년 산지유통종합평가(익산 탐마루조공법인)에서도 총 취급액 대비 공영도매시장 정가 수의매매 취급 비율 15%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익산시 먹거리 협약 체결에 대한 통합마케팅과의 연계 활동 노력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해 탐마루법인과 우리시는 산지유통통합성화 자금(무이자 인센티브) 총 78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참여조직 원물 확보 자금 지원 및 농가제 공급자금 등에 활용,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은 "생산자조직 육성 강화와 통합마케팅조직(익산탐마루조공)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익산시와 익산 탐마루조공 및 참여조직 간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이웃사랑 실천을 증가시킨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임피면 이웃사랑 활짝

군산 황토코리아협동조합 착한가게 1호점 후원금 증액기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이웃사랑 실천을 증가시킨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임피면은 착한가게 1호점 황토코리아협동조합(대표 배종문)가 매달 기부해온 후원금을 증액시켰다고 5일 밝혔다.

임피면에 소재한 황토코리아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왔다.

황토코리아협동조합은 휴먼데 및 돌

침대 제조 회사로 착한가게 1호점에 가입했으며 최근 후원금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배종문 대표는 "착한가게 나눔활동 및 많은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봉열 임피면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착한가게의 후원금을 증액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새봄맞이 가로변 봄꽃 심기 완료

군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심리적으로 활력을 잃은 지역 분위기를 개선하고 완연한 봄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새봄맞이 가로변 꽃 식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팬지, 비올라, 크리산세럼 등 15만여 분을 가로화분, 가로화단, 교통신호 등에 식재했다.

올해는 사정리 삼거리와 최효정교

교차로 등 신규 교통신호 3개소와 월명로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추가로 조성하고 향후 봄·여름·가을·겨울 기후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절 꽃을 심어 계절별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심문태 산림복지과장은 "도심지 내 다양한 계절별 꽃 식재가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지친 시민들에게 일상 회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아이 낳기 좋은 익산, 산후건강관리 지원 확대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산모' 로 확대 한방과·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익산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의 건강 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산모의 건강회복 및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건강관리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을 기존 출산일 기준 '7개월 이내'의 산모에서 '1년 이내'의 산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2019년 도내 최초로 시행

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산모가 출산 후 산후 치료와 관련해 받은 진료에 대해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도 사업으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정 한방과나 산부인과에 신청 후

발급받은 쿠폰을 제출하면 산후 치료에 대한 외래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더 많은 산모가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출산모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 실시

익산시는 2021 회계년도 총 139,311억5,0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산검사위원은 결산서 확인, 재정 집행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결산검사는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이번 결산검사를 위해 202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

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등 통합결산서(안)의 작성을 사전에 완료했다.

시는 김용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세무사와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들은 2021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22종) 등을 검사한다.

특히 예산이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히 검토하여 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총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의 꼼꼼한 검사를 바탕으로 결산 검사

의견서가 작성되며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결산은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세입·세출예산, 징수, 수납,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입·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군산시는 이달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지원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 촉진사업이다. 올해 시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2천 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분야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 △다문화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사업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지역은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불법현수막 제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익산시는 도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제거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유봉식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 10여명은 지난 2일 익산시청 도로와 불법광고물 정비반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현수막 정비를 시행했다.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지역 주택조합에서 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이 시 관내를 뒤덮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현수막 4,000여 장 수거했다. 그중 1,738장에 과태료 4억3,400여만원을 부과했고 2천여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기존 광고협회 익산시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휴일 불법 현수막 단속과 연계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익산시 주요 국도변과 지방도, 주요 사거리에 상습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분양 광고 현수막을 정비해 경관을 보충하고 시민 불편을 감소시켰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